

509 빌 1:1-18, 복음 안에서의 교제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B.C.167년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 B.C.42년 이후 로마 퇴역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부터 빌립보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로마의 군사 전초지로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도시였다.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빌립보가 투표권과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말한다. 빌립보는 한마디로 로마시의 축소판으로 빌립보 시민들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아마도 이것이 본 서신 3:20에서 바울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빌립보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물질적으로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준 교회이다. 본 서신의 기록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 중이었다. 빌립보교회는 이때에도 담임 교역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투옥된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바울의 선교사역을 돕도록 할 만큼 바울에게 깊은 애정과 호의를 보여준 교회이다.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빌립보교회의 담임교역자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의 선교사역을 돕기 위한 임무를 띠고 빌립보교회로부터 파송 받는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돕던 중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른다.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 파송된 담임교역자가 로마에서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소식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준다. 또한 이는 빌립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 본인과 바울 사도에게도 커다란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화로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적으로 그 중한 병에서 회복되었으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회로 돌려보낸다. 바울은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회로 환송시키면서, 본 서신을 통해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는지를 알리며 그를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바울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빌립보교회가 그동안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것이 본 서신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계기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신앙과 행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다른 바울서신과 달리, 본 서신은 마치 친근한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과 같은 인상을 주며, 감사와 온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빌립보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본 서신에는 유대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여성 사이의 불화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한편,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바울의 초월적 생사관, 꺾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바울의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바울의 확신, 특히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바울이 누렸던 신앙의 기쁨 등은 현대의 성도들이

필히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본서 3장 17절을 통해 ‘나를 본받으라’ 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노(老) 사도의 숭고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서의 기록연대는 바울이 1차로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었던 기간 중인 A.D.62-63년으로 추정되고, 수신자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바울의 숭고한 신앙과 빌립보교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및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빌립보서의 구조

1:1-11, 머리말

1:12-26, 투옥된 바울의 근황

1:27-2:30,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 및 모범 제시

3:1-4:1, 유대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및 신앙 정진의 권면

4:2-20,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 및 후원에 대한 감사

4:21-23, 끝맺는 말

1:1-11, 머리말

1:1-2, 발신자와 수신자 표기 및 축도

1장1절上: 그리스도 예수의 중 **바울과 디모데**는 ...

→ 발신자가 누구인가?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수신자를 표기한다.

1장1절下: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참고로, 디모데는 본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바울과 함께 서신서의 공동 발신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기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서신서의 공동 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디모데는 진리 안에서 바울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1장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3-7, 빌립보교회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

1장3-5절: 3. 내가 너희를(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 여기서 ‘첫날부터’ 는 바울이 A.D.49-52년 제2차 전도여행 중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 전한 때를 가리키며, ‘이제까지’ 는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중에서 본서를 기록할 때인 A.D.62-63년경을 가리킨다. 이처럼 빌립보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대략 10년간 한결같이 변함없이 바울의 선교사역에 동참한 고마운

교회였다. 5절을 예전 개역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자. 5절, 개역한글 성경도 좋은 번역이다.

(빌1:5, 개역한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 강조표시하자. 바울의 감사의 핵심은 빌립보교회 성도들과의 **복음 안에서 교제**에 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교제’ 여야 한다. 여기서 ‘교제(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선교사역에의 동참과 동역을 의미한다. 빌립보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대략 10년간 기도와 재정지원을 통해 바울의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었기에,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다. 아마도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가장 열심히 힘을 보내었을 것이다. 우리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와 선교사역을 위해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다음 주간 금-토에 있을 외부인 대상 ‘마태복음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고 동역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장6절: (빌립보교회 성도들)너희 안에서 착한 일(구원사역)을 시작하신 이가(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 6절은, 창세 전에 예정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입증하는 구절로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다.

1장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6절과 같이) 생각하는(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내 마음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가택 연금된 것과) 복음을 변명함(변증함)과 확정함(증거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사명)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별표하자.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주었는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사명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 보다는 ‘사명’ 이 더 바른 번역이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설명처럼, 우리가 성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에 변함없이 협력하고 동역하며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정성과 구원의 완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1:8, 빌립보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

1장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지극한 깊은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1:9-11,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9절 첫 번째 기도 내용이다.

1장9절: 내가 기도하노라 ①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 ① 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9절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에 반드시 겸비되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저버리는 무분별한 불의하고 비겁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진리 없는 사랑, 진리가 없는 열정은 많은 신앙적 오류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참사랑,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10절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이다.

1장10절上: ②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

→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주사랑교회 중직자 정도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든지, 인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적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장10절下: ... 또 진실(순결)하여 허물(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르고

→ 순결하여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다. 10절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순결하여 허물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2번째 기도 내용이다.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구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구절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1장11절: ③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 의의 열매가 어떠해야 하는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이번 가을에 시골의 곳곳에 자라고 있는 감나무들의 열매를 보셨습니까? 그 어떤 감나무도 잎만 가득한 감나무가 없었다. 살아있는 감나무는 모두 다 열매가 가득 맺혀 있는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지난 가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 11절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3번째 기도 내용이다. 역시 중요한 기도 내용이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할 때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 곧 성화의 증거를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새사람이 된 성도는 이러한 **변화된 인격의 열매,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1:12-26, 투옥된 바울의 근황

1:12-14, 바울의 투옥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진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자신의 가택연금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감격스런 사실을 기술한다.

1장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 도리어(오히려) 복음 전파에(선교와 전도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13-14절에서 한다.

1장13절上: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의 방위를 책임지는) 모든 시위대 안과 ...

→ 우리로 말하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라고 할 수 있다.

1장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의 방위를 책임지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로마)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 모든 로마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사랑교회와 함께 선교와 전도의 사역,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일들, 매우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진리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주사랑교회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13절은 바울이 투옥된 이유가 개인적 범죄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 로마 최정예 부대와 관련된 로마의 관리들과 주변 많은 로마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것은 언뜻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보이지만, 그것이 선교의 관점에서 오히려 매우 선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1장14절: 형제(로마교회 성도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더 확신을 얻어서) 겁 없이(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 로마교회 성도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확신을 얻어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14절은 투옥 중에 바울이 보여준 성숙하며 확신에 찬 태도로 인해, 바울의 투옥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용기를 꺾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하는 요소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당시 바울이 어둡고 차가우며 습기 찬 지하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간주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중으로 가택연금 상태였다. 비록 사슬에 매인 상태이기는 했으나, 사도행전 28:30-31의 보도와 같이 셋집에서 유하며 방문객에게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시위대를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15-17,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반된 동기와 자세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진 자가 있는 반면, 악한 의도를 가진 자도 있었음을 밝힌다.

1장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나니

→ 이런 표현은 로마교회 구성원 중에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인간적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1장16절: 이들은(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자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전도) 하나

1장17절: 그들은(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자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름(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 당시 로마교회 내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본절에 ‘나의 매임에’ 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들의 바울을 향한 공격은 주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수감된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8,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바울의 심경

특히 성품의 변화, 감정의 미성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본문이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었다.

1장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바울은 일부 사람들이 시기심과 경쟁심과 같은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남들이 자신을 시기하던 비방하던 미워하던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명 중심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다는 바울의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빌립보서 1:1-18의 말씀을 골방에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빌립보서 1:1-18

- 성도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동역)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 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출 19:5-6, 마28:19-20)에 동참(동역)하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 그 성도의 믿음의 진정성과 구원의 완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
- 9절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이다.
- 바울은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분별력이 겸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10절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이다.
- 11절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이다.
- 여기서 ‘의의 열매’ 라고 할 때 ‘의’ 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순종하는 의(義) 곧 성화(聖化)의 증거를 말한다.
-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밝힌다.
-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롬 8:28).
-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전도와 선교)에 있었다.